



예거 르쿨트르의 아이콘, 리베르소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를 방문한 앰버서더 김우빈

최근 예거 르쿨트르의 앰버서더인 김우빈이 발레드주에 위치한 매뉴팩처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리베르소가 제작되기까지 그 이면에 자리한 장인 정신과 기술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배우 김우빈은 로맨틱 코미디에서 드라마, 액션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TV 시리즈와 흥행작에서 호평을 받으며, 매력적인 존재감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기를 향한 열정을 지닌 그는 2021년부터 예거 르쿨트르의 앰버서더로 활약해오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CEO 캐서린 레니에(Catherine Rénier)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지구 반 바퀴를 날아 예거 르쿨트르의 매뉴팩처를 방문해준 배우 김우빈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는 풍부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그랑 메종의 역사에 깊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고, 정교한 위치메이킹 과정을 살펴보고 아틀리에 앙투안에서 직접 체험한 과정을 거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단편 영상인 '*Behind the walls*'은 김우빈이 매뉴팩처에서 보낸 하루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는 공방을 둘러보고 그랑 메종의 헤리티지 갤러리를 방문하거나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장인들이 보유한 숙련된 기술을 배워 보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아틀리에에서는 장인들이 리베르소의 빈 케이스백을 캔버스 삼아 자신의 창의성을 표현하는 특별한 과정을 직접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아틀리에 앙투안에서 선보이는 리베르소 디스커버리 워크숍에서 1931년에 탄생한 놀라운 회전 시계의 역사를 배우고 매뉴팩처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직접 리베르소 케이스를 조립하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매뉴팩처를 방문한 김우빈은 "기계식 시계를 처음 접한 후 정교한 메커니즘에 흥미를 느꼈고, 제작 과정이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뉴팩처를 방문한 이번 경험은 기대한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매뉴팩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살펴보고, 자신의 작품을 즐겁게 설명하는 워치메이커들, 탁월한 수준의 정확성,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전문적인 장식 공예 지식을 확인하는 등 매 순간 놀라운 경험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착용한 시계에 더 강한 애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베르소 시계 매뉴팩처에서는 이번 일정을 마무리하며 특별한 메시지를 새긴 시계를 그에게 선물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오직 김우빈만을 위한 메시지("To Kim Woo-Bin – a memory to cherish forever – Jaeger-LeCoultre")가 새겨져 있습니다.

김우빈은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에게 이 시계는 다른 어떤 시계와도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합니다. 시계를 착용할 때마다 이번 방문에서 배웠던 내용을 비롯해, 매뉴팩처에서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해주신 모든 분들의 철학과 열정을 느낄 수 있어 특별했던 오늘 하루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김우빈 소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김우빈은 2011 년 TV 드라마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데뷔하였습니다. 그는 신사의 품격(2012 년)에서 연기력을 인정 받고, 학교(2013 년), 상속자들(2013 년) 그리고 함부로 애뜻하게(2016 년)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친구(2013 년), 기술자들(2014 년), 스물(2015 년) 등 수많은 흥행작에 출연했습니다. 6 년 만에 복귀한 그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2022 년)와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1 부*(2022 년)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최근 올해 5 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SF 시리즈 *택배기사*에 출연 중입니다. 그는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아이콘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jaeger-lecoultre.com